

#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**천년 전북!**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보도시점: 2021년 8월 17일(월)부터

- 문의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(063-280-7141)
- 담당 : 산업경제연구부 김수은 연구위원  
산업경제연구부 정미선 전문연구원 (063-280-7133)

## 전북 생활업종 지원대책 수립시,

세밀한 선정기준과 지원방식 필요

통신판매업·한식전문점·커피음료점 **1,781개 증가**하는 동안  
호프전문점·옷가게·간이주점 **526개 감소**
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 ]

-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북연구원(권혁남 원장)은 17일 '전라북도 지역통계 인포그래픽스'를 통해 2021년 5월 기준 전라북도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수는 90,106개로 전년동월 대비 4.76%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
- 100대 생활업종은 주로 소매, 음식·숙박,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(용역)을 판매·취급하는 업종으로 국세청이 매월 발표하고 있다.
- 전북연구원은 한식전문점(14,866개), 통신판매점(7,429개), 미용실(4,092개) 등의 순으로 사업자 수가 많고, 상위 10대 업종이 100대 생활업종의 절반 이상(51%)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전년동월대비 1,731개

가 증가했고, 한식전문점, 커피음료점, 피부관리업 순으로 증가했으며,

-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전년동월대비 206개 감소한 호프전문점이며, 옷가게, 간이주점, 구내식당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 100대 생활업종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완주군으로 전년대비 6.9% 증가했고, 남원, 무주 등 주요 관광지역의 경우 '펜션·게스트하우스'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수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성향 및 생활패턴 등이 변화함에 따라 업종간 증감추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시 보다 세밀한 선정기준과 지원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